

태백산 신령님



태백산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장현정 글 | 강현수 그림

소원 있어요!

태백산신령님



소원 있어요!



태백산을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는 까닭은
단군신화가 깃든 고조선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며,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천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천제단

하늘과
소통하는 천제단





우리 민족의 뿌리 '단군신화'

옛날 옛적 하늘신 환인의 여러 아들 중에 환웅이 있었습니다. 환웅은 아름답게 뽀은 태백산을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지요. "오오! 이곳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중심지로 손색이 없도다." 환웅은 태백산 정상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 달라고 간청하는 게 아니겠어요?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는 그것을 먹으면서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곰은 환웅이 시키는 대로 하여 여자로 변했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신단수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신성한 나무

마늘과 쑥만 먹으니 너무 배고프다~

환웅이 말했하심 100일이 지나 날지 않으면 이 고비만 넘기면 돼!



100일을 버티어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인간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쁜 아기를 낳게 해주소서..." 환웅은 잠시 인간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을 했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고초선을 세운 단군왕검이랍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삼국유사》의 단군신화에 나오는 말

홍익인간





하늘에 제사를 올린 '천제단'

태백산 정상에는 중요민속자료 제228호인 '태백산 천제단'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등 아주아주 오래된 서적에는 각 시대의 제왕들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천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천왕단과 장군단, 하단(부소단)을 모두 합해서 '천제단'이라고 부릅니다.



장군봉 비석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계령의 기원 상징이야~



장군단



하단(부소단)



더 세게가게 해 주세요.

장군단
높이 2m
둘레 20m

하단(부소단)
높이 약 2m
너비 약 6m

장군단
다른 형태로 구성된 소왕궁과 달리 장군단 은 서로 평행한 긴 사각 형태인데, 도리가 관음단보다 작긴 하지만 원래 모습에 비교적 잘 남아 있지요.

하단(부소단)
전체 모습 이야기가 예 따르면, 단군이 셋째 아들인 부소 왕자가 살았다고 하여 부소 단이라 함데요.

전왕단을 중심으로 북쪽 뒤편에는 장군단이 있고, 남쪽 언덕 아래에는 하단(부소단)이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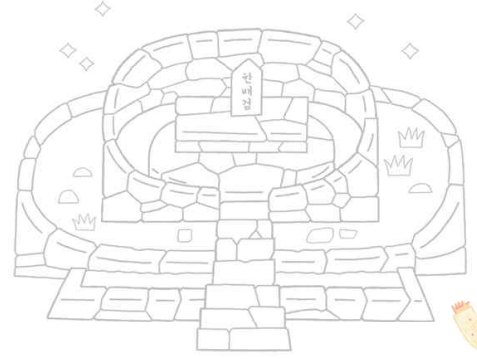
오천제단 이야기



단군신화에는 곰과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만약 내가 이야기 속의 배고픈 호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고 글로 자유롭게 써보세요.



역사 속 왕들은 계사를 올리며 어떤 기원을 했을까요? 내가 그 시대의 왕이었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며 정성껏 색칠해 보세요.





사해에 용이 되려고 수행에 정진하는 이무기가 살고 있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함께 떠나볼까요?



태백산에 용이 있었다고?

서해에 용이 되려고 수행에 정진하는 어무기*가 살고 있었어요.
 "이 몸은 무려 천 살이나 되었느니라. 어른게 예를 갖춰라. 어흠!"
 어무기는 비와 구름, 폭풍, 번개, 우박을 다스리는 물의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풀고기도 안 먹고 열심히 수행에 정진했어요.
 "수리수리마수리, 비야 쏟아져라! 폭풍아 일어나라!"
 하지만 겨우 비구름 정도만 부를 수 있었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에,
 어무기는 달의 기운을 더 가까이에서 받기 위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까지 헤엄쳐 갔습니다.



수리수리마수리
수리수리마수리

Tip
 어무기 우리 나라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적 동물. 차가운 물속에서 천 년 동안 지내면 용으로 변한다고요.



엄마야니 용이 되지만 어무기야!

천 살이면 벌써 용이 됐어야지...

난 허룡잖아재다. 쟁!

한강의 시작점을 찾아서

바다의 시끄러운 파도와 태풍이 때릴 때 이무기의 수행을 방해했지만, 강은 더없이 조용했어요. 강물의 맛도 이무기를 확 사로잡았지요.
 “오~ 이 달콤한 강물을 마시며 조용히 수행하던 끝 용이 되겠지.”
 이무기는 한강을 지나 남한강을 거쳐 동강을 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는야 미래의 용님이시다. 그런데 대체 이 물길의 끝은 어디메로.”

아라사해간문
 아라사해간문 사해의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요, 지금은 산책로가 늘어나고 수질도 좋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한강에서 녹음관 단원으로 인기예요.

양수리 죽물머리
 죽물머리 죽물머리 죽물머리 만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예요.

남한강
 강원도 태백산맥을 지나면서 모인 많은 물줄기가 충청북도를 거쳐 경기도로 흘러가는 강으로 관 광지원이 매우 풍부하지요.

월악산국립공원
 나도 같이 가~

속리산국립공원

도담삼봉

월악산국립공원

아름답다

용은다 명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

정신공지천(아우리재)
 공지천의 용마가 만나 이루어진다고 하여 아우리재라고 불리는 이곳은 예로부터 강과 산이 수려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물길은 점점 좁아져 강바닥의 돌에 몸이 금히기도 했지만, 맑고 시원한 강물을 마시면 금세 기운이 났습니다. 이무기는 마침내 물길의 끝 '금대봉골'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답니다.

금대봉골
 한강의 발원지 금대봉골이 있는 골짜기를 금대봉골이라고 해요. 골짜기 전체가 국유림인 죽림으로, 계곡마다 울오와 희귀 동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여기가 금대봉골이야

신성한 못, 검룡소

빨리 용이 되고 싶었던 이무기는 곧 명상에 잠겼습니다. 검룡소의 물은 사계절 9℃ 정도로 일정하고 3천 톤의 물이 평생 솟아오르기에, 이무기는 마실 물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르릉 쾅!' 이무기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다는 굼주림을 견딜 수 없어졌을 때 못에 물을 마시러 온 소들을 발견했지요. 이무기는 소들을 정신없이 잡아먹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켜고 말았습니다. 놀란 이무기는 성난 사람들을 피해 못 한가운데에 굴을 뚫고 들어가 깊숙이 숨어버렸네요.



"괴물이 나오지 못하게 못을 배워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어디 한번 해보라지. 난 용이 되기 전까진 절대로 안 나가!"
그 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배운 못은 결코 물이 마르지 않았고, 신성한 못에 대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글쎄 그 이무기가 용이 됐는지 뭐예요."
"뭐야? 이무기가 물의 신 '검룡'이 됐다고?"



물이 마르지 않는 한강의 발원지

청정수가 뿜어나오는 검룡소 주변은 한여름에도 서늘할 정도랍니다. 이무기 전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검룡소의 신비하고 기묘묘한 모습을 두고, 이무기가 몸부림친 흔적이라고 한대요.

또 하나 꼭 알아야 할 사실!
검룡소에서 사시사철 암반을 뚫고 솟아난 물이 바로 한강의 첫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오늘날 까지도 사람들은 정성을 더해 '한강 발원제'를 올립니다.



검룡소 발원제



헤마더 잊지 않는 정성이 가득하구나, 검룡소는 영원이 마르지 않으니 백두대간에 흐르는 모든 물줄기가 전 목도를 적셔줄 것이니라.

건강해지는 청정의 아름다움

맑고 청정한 김룡소 주변에는 열매지, 동자꽃, 현호색, 처녀치마, 노랑갈퀴, 어수리, 모감주나무, 미나리아재비, 참나무군, 침엽수군락지 등의 식물과 금개구리, 꼬리치레도롱뇽, 압락할미새 등의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어요.



김룡소에는 계곡물과 숲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가득해요.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또 김룡소의 모든 곳이 한 폭의 그림 같아,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다운 김룡소에 소원을 빌리며 동전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룡소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입니다. 청정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절대로 동전을 던지지 않도록 해요.

계곡물과 숲에서
음이온이 풍부!





생각 꾸러미 1

용이 된 이무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음대로 상상해서 그림을 완성해 보세요.



어리별의 상상 속에서 용이 된 이무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 꾸러미 2

이무기처럼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경험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나요?

실패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또는 지금 무언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내용을 글로 써보세요.



나는 즐겁고
신만 큼이 있어요.



태백에는 물길의 시작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낙동강 1,300리의 발원지 황지연못이지요. 이곳엔 아주 재미있는
'황부자 건설'이 얽혀 있다지요.





황부자 전설

오랜 옛날, 심보 사냥고 육십 탐기로 소문난 황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나이 든 스님 한 분이 황부자의 집으로 시주를 청하러 왔지요.
 그런데 황부자가 시주는 고사하고 쇠뿔을 피부으려는 게 아니겠어요?
 이를 본 며느리가 얼른 장뿔을 빌며 쌀 한 바가지를 시주하였답니다.
 스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곧 이 집에 다칠 번고를 피하려면 나를 떠리오시오. 그리고 집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아니 되요."
 며느리가 아기를 업고 스님을 따라나선 후 얼마 되지 않아
 "우지근 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며느리는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오리우리하던 황부자네 집은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황부자는 흉측한 이무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며느리는 등에 업은 아기와 함께
 그대로 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

황부저에 짐이 있던 자리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관관 뿜어 나왔고, 그곳이 그대로 큰 연못이 되었는데, 후대 사람들은 황부저의 성색인 '황(黃: 누른 황)과 땅을 뜻하는 '지(地: 땅 지) 두 글자를 붙여 '황지연못'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해 오는 말로 상지는 집터(둘레 100미터), 중지(50미터)는 방앗간 터, 하지(30미터)는 뒷간* 터였다고 합니다.



뒷간
뒷간 옛날에는 화장실을 뜻
간이라고 부른, 집과 화장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음.



황지못 상지 안에 깊은 굴이 있는데 그 굴에서 물이 하루에 5천 리씩 뿜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솟아난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고 흘러 드넓은 영남평야를 적셔주는 낙동강이 됩니다. 태백에는 검룡소(한강의 발원지), 황지연못(낙동강의 발원지), 삼수령(오십천의 발원지) 세 곳의 발원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하늘의 축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생각 꾸러미 1

머느리와 아기가 돌로 변해 버린 안타까운 이야기 '황부자 전설'에서 느낀 점을 글로 써보세요.

Blank writing area for the first page.



황부자는 왜 훌륭한
이웃가가 되었을까요?

생각 꾸러미 2

여러분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을 좋아하나요? 황지연못의 풍경 그림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을 표현해 보세요.

Blank drawing area for the second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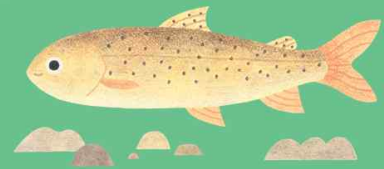
봄-여름-가을-겨울
중에 좋아하는 계절을
그려 보세요~



태백산의 차고 맑은 물이 흐르는 백천계곡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친구가 살고 있어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얼묵어'입니다.

얼묵어길 따라,

백천계곡



이야기

열목어가 살 수 있는 최남단

열목어(원연기남문 제기호)는 아주 깨끗하고 차가운 물에서만 살 수 있어요. 열목어는 북부아시아의 몽골과 시베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습니다. 특히 백천계곡은 열목어가 살 수 있는 '남방한계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목어는 어른 물고기로 성장하면 몸길이가 30센티미터쯤 되고, 최대 70센티미터까지 자라납니다. 주로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 물에 사는 곤충류를 잡아먹는 육식성 어족이에요. 산란기에는 열목어의 등과 가슴 부분이 붉은 무지갯빛 광택을 내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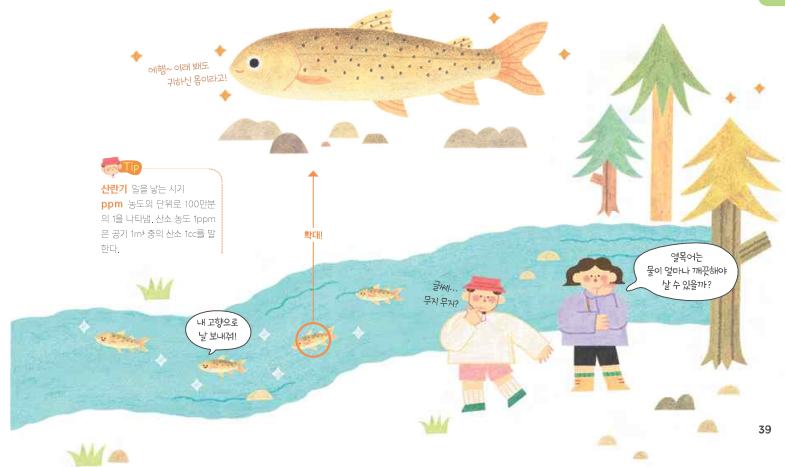
한빛사 인근 열목어 관찰소



열목어



열목어는 열목이 되기 시작하는 이른 봄에 하천 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헤치고 알을 낳는답니다. 열목어의 생태환경은 물이 맑고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한여름에도 수온이 20°C 이하여야 해요. 또 물속 산소 농도가 9ppm*이 넘어야 하지요. 주변의 울창한 숲이 이렇게 다양한 환경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연어과에 속하는 열목어는 백천계곡에서 태어나 낙동강에서 겨울을 보낸 뒤 산란기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청정 명품 '백천마을'

연륙어가 사는 백천계곡 인근에 경치 좋고 공기 맑기로 소문난 마을이 있어요.
 명품 마을로 지정된 '백천마을'이지요. 백천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동시에 태백산국립공원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자원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치 좋고 공기 맑은
청정 마을이네





열목어가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Large empty dashed-line box for writing answers to the question on page 42.



태백산국립공원의 자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어를 쓰고, 예쁘게 색칠해 보세요.

Large empty dashed-line box for writing and coloring a slogan for Taebaeksan National Park on page 43.





태백산 신령님 소원 있어요!

연락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태백산국립자연휴양림사무소
 주소 256-84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로 4776
 전화 033-550-0000
 팩스 033-552-7836
 홈페이지 <http://taebaek.nps.go.kr>
 금요일 휴무
 웹사이트 강원투어
 사진 태백산국립자연휴양림사무소
 교정교열 이상희
 디자인 디자인비바 02-594-7111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태백산국립자연휴양림사무소의 사전 승인없이 무단 복제 및 판매를 금합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http://taebaek.knps.or.kr>

태백산은 우리 민족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지리적 역사의 시작이기도 한 영산입니다.
태백산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귀중한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신비하고 재미있는 전설도 많답니다.
태백산 곳곳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만나보세요.

